

# “변하지 말자”... 그리움 감성 그대로

## ‘바이브’ 정규 7집 ‘리피트 & 슬러’ 타이틀 곡 ‘외로운 놈’

“재현 씨랑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변하지 말자는 거요 초심 그대로 그 때 감성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편곡 등 음악적으로는 성장해 있을지언정 말이죠.”(윤민수)

“이번 앨범의 감성은 2, 3집 감성인 것 같아요 그 때의 감성을 채워주는 음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에요. 그리움에 대한 감성들이요.”(류재현)

보컬 듀오 바이브의 윤민수·류재현은 지난 15일 공개한 정규 7집 파트2 ‘리피트 & 슬러(Repeat & Slur)’의 타이틀 곡 ‘외로운 놈’을 설명하면서 “2집, 3집, 4집의 감성이 다 들어 있다”며 이렇게 입을 모아

2002년 1집 ‘에페터글로(Afterglow)’로 데뷔한 바이브는 ‘사진을 보다가’ ‘오래오래’(2집·2003), ‘술이야 그 남자 그 여자’(3집·2006), ‘비친겨니’ ‘다시와주라’(4집·2010) 등 감성적인 히트 발라드를 대거 쏟아냈다.

윤민수는 ‘외로운 놈’에 대해 “트레드밴드 느낌의 곡은 아니지만 노래를 듣고 그리워할 분이 많을 것”이라며 “사랑에 대한 감성은 직접적인 힌트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않아요 바이브는 변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 사이 멤버들이 결혼을 하는 등 사랑에 대한 세밀한 감성은 변했지만 류재현은 “그 감성에 빠져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부정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이 음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외로운 놈’이 이날 엠넷 벅스 뮤직3 등에서 실시간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지만 예전 같이 수록곡을 차트 상위권에 ‘끌세우기’를 하던 위세와는 거리가 있다.

윤민수는 “이제는 많이 내려놓았어요 정말 저희 음악을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는 분들이 항상 찾아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에는 밴, 임세준 영인 등 같은 소속사인 더바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힘을 실었다. 류재현은 “식구라기보다 음악적 동료예요 밴이나 영인 등은 우리와 음악 스타일이 잘 맞았다고 소개했다.

윤민수는 지난달 자신이 MC를 맡은 KBS 2TV ‘불후의 명곡’ 녹화장으로 향하던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행했다. 각종 해외활동과 단독 콘서트 준비 및 음악 작업에 몰두하다 몸에 무리가 왔다.

현재 건강하다는 윤민수는 “이제 ‘불후의 명곡’ MC는 올해 안에 그만 둘 예정이에요. 대신 (이 프로그램의 사전 MC이자 이날 사회를 본) MC 덩동을 추천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 함께 출연한 이후 항상 윤민수가 대중에게 근황을 전해야 하는 아들 윤후가 이번 앨범 수록곡 ‘나나나의 코러스’에 참여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바이브는 무엇보다 이날 한국적인 정서와 감성을 넣은 솔의 변형인 K-솔을 강조했다. 윤민수는 “저희가 부르는 노래에



케이소을 대표주자 바이브 윤민수(왼쪽)와 류재현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프리아호텔에서 열린 바이브는 정규 7집 파트2 ‘리피트 & 슬러(Repeat & Slur)’ 기자회견에 참석해 끝인사를 하고 있다.

흑인 솔의 감성을 넣으려고 보니, 애드리브가 영어로 되는 등 썩 어울리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4집 때 노래 부를 때 기교를 싹 뺐어요. 김현식, 김광석 선배님처럼 스윗하게 부르지만 그런 테크닉이 녹아 있는 걸 흉내내고 싶었거든요. K-솔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외국의 음악을 받아들여서 따라 불렀지만 결국 우리나라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감성이요.”

류재현은 랩 등 다양한 재료를 넣은 부대찌개의 예를 들며 윤민수의 설명에 힘을 보탤다. “개인적으로 부대찌개는 찌개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에 비유하면, 수많은 음악을 접하면서 모든 걸 집어넣은 넣고 삼킨 것이 K-솔이죠. K-솔은 저희만이 아닌 우리나라 가수들의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장르 자체로 여겨졌으면 해요.”

/뉴시스

## 태권도조직위, 캐나다 버나비에서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홍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캐나다 버나비에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해외홍보에 나섰다.

대회 조직위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캐나다 버나비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 현장에서 선수단과 세계태권도연맹(WTF)관계자에게 리플릿, 배지를 나눠주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조직위 이종석 사무총장은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마련해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태권도원의 성지(聖地) 이미지 구축과 종주국의 위상 강화,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 브랜드 창출 등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대회는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내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펼쳐진다.

/김민근기자

## 전라북도 회장기 유도대회 고창서 개최

전북 유도인들의 화합 한마당인 ‘제4회 전라북도 회장기 유도대회’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다.

전북교육청과 전북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북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 선발전, ‘추계 대학 동아리 유도대회’도 겸해 진행된다. 고창군은 유도종목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직강여자유도부를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회 전라북도 회장기 유도대회’는 매년 참가선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유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선수 상호간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인정 넘치는 고창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전북현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필승 준비

### 대표팀 6인방 합류 조직력 강화에 만전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19일 UAE 알 아인과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필승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지난 15일 월드컵 최종예선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김신욱, 이재성, 김창수를 포함한 대표팀 6인방은 휴식 없이 바로 클럽하우스로 복귀했다.

이들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선수단은 필승의 의지를 불태우며 조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프린트 역시 선수단의 100% 컨디션 유지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AFC CEO 워크숍을 비롯해서 원정팀 마케팅 대행사 등 관계자들 안내와 경기장 시설물 점검 등 여러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전주시 역시 경기장을 운영하는 ‘1994번’버스를 20대로 증편하며 응원하는 팬들의 이동에 힘을 보탤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번 결승전은 16일 현재 이미 1만석이 사전 예매가 됐으며, 15일에 열린 지정석 예매는 오픈 10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됐다.

전북 이철근 단장은 “올 해 전북의 목표는 ACL 우승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19일 경기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 팬 분들께서는 내가 가야 전북이 이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전주성에 와주시기를 바란다. 전주성에 4만 명이 모이면 전북은 우승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프로야구 NC, 코칭스태프 개편 내년 시즌 준비

NC 다이노스가 코치진 개편을 통해 새롭게 2017시즌을 준비한다. 전 삼성 라이온즈 주루 코치였던 김병호 코치가 NC에 합류한다.

김병호 코치는 삼성 시절 김상수 박해민 등 3년 연속 도루왕을 만들어 낸 검증된 코치이다. 김병호 코치는 3루 작전 코치를 담당하게 된 전준호 코치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빠른 주루플레이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수코치였던 최일언 코치가 수석코치로 임명돼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전체를 지원한다. 최일언 코치의 기존 역할은 김상열 코치가 수행할 예정이며, 고양 다이노스(NC 다이노스 퓨처스팀)의 지연구 코치가 N팀 불펜코치로 기존 투수진의 역량 강화 및 새로운 투수 발굴에 더욱 힘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타격코치 또한 젊어진다. NC는 이도형 한국시 코치가 N팀으로 전직 합류해 선수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패기와 활력 넘치는 현장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